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주)금솔개발

금솔개발은 행복한 삶과 더불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실 위주의 경영이념으로 안정속의 성장을 해왔으며 설계에서 부터 시공 및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성장과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회사, 믿음과 신뢰로 무한감동을 실천하는 회사가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주)금솔개발 대표이사 윤 정 한

전/문/업/무

조경공사(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유지관리, 기술상담
조경자재 생산 및 판매, 실내조경공사,
법면보호공사 등 조경공사에 준하는 일체의 사업

업/무/대/상

아파트, 공공주택조경, 공원조경, 가로변조경, 녹지대, 운동장,
골프장, 암석원, 학교조경, 동.식물원, 호텔, 고속도로 조경,
축구센터(천연잔디구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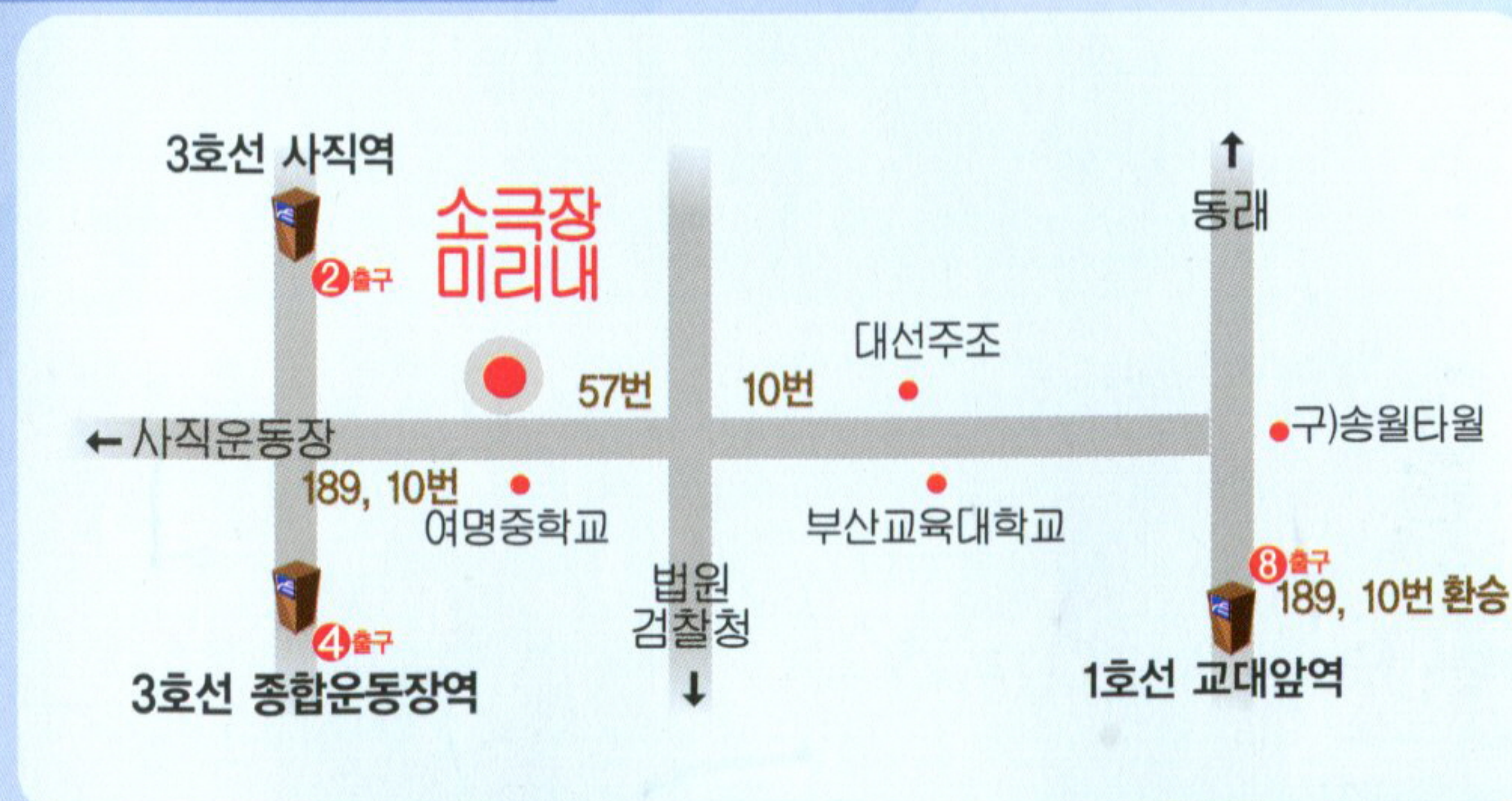
INFO

- 공연명 :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겠다
- 공연날짜 : 2010년 12월 3일(금) ~ 12월 26일(일)
- 공연시간 : 평일 8시 / 토요일, 일요일 4시 (화요일 공연없음)
- 공연장소 : 미리내 소극장(사직동)
- 티켓가격 : 균일석 25,000원
- 주 최 : 극단 아센
- 주 관 : 미리내소극장
- 문 의 : 504-2544, 070-4228-2543
- 예 매 : 인터파크, 옥션티켓, 예스24, 맥스티켓, 부산은행, 팝부산
- 작 / 연출 : 호 민
- 출 연 : 구민주, 호준철, 성민규, 호민
- 스텝 : 조명 반지수 | 음향 김현석

행복한 할인 이벤트

할인명	할인율	적용가격	내 용
프리뷰할인	50%	12,500	12/3 ~ 12/5 공연 예매시
조기예매할인	40%	15,000	12/3 까지 예매시
지역할인	40%	15,000	동래구, 연제구 주민 예매시(본인만해당)
월요일할인	40%	15,000	월요일 공연 예매시
청소년할인	60%	10,000	중고생 예매시
문화나눔할인	60%	10,000	장애인, 국가유공자 동반 2인까지
부산도시철도할인	40%	15,000	부산도시철도정기승차권 제시(본인만해당)
행복할인	30%	17,500	인터넷 예매시 할인

오시는길



극단 아센 제30회 정기공연

정직한공연, 예술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문화향기 부산형예비사회적기업 사람+



2010.12.3(금) ~ 12.26(일) 미리내소극장

공연시간 : 평일8시 / 토,일4시(매주 화요일 공연없음) 문의) 504-2544
티켓가격 : 균일25,000원 작.연출 : 호민 출연 : 구민주, 호준철, 성민규, 호민

예매 : 인터파크 티켓 AUCTION 티켓 YES24.COM BS 부산은행 맥스티켓
주최 : 극단 아센 주관 : 미리내소극장
기획 : 문화향기 사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찬 : (주) 금솔개발

연출의글



연출 호 민

어제 까지만 해도 극장 앞에 버티고 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나뭇굴며 한껏 가을의 정취를 뽐어내는 듯 하더니만,
 웬걸? 오늘 아침 바라본 나무가지엔 앙상한 가지만이 며칠 굵은 방랑노숙자의 초췌한 얼굴 인양, 옷가지를 벗어던지고 행한 모양을 드러내며 벌벌 떨고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리풍경, 지나는 사람들의 옷 두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비로소 시간이 흘렀음을 감지해 낸다.

무엇이 그리도 바빠야했던지, 유독 올 한해는 도대체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잊고 지낸 듯 하다. 그리도 바쁜 일정에 갇힌 흥, 배가 교차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몸부림치며 한 차례의 풍량이 휩쓸고 지나간 듯이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더이상 행복하지 않겠다>를 통해 관객과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자 한다.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부부의 조금은 기이한 동거를 통해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무의식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 놓였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단편을 연극이라는 무대를 통해 재현해 보고 싶었을 뿐이다.

연극이라는 이름을 통해 정신적 의미론을 교류해 보고 싶은 간절함을 담아 무대에 올리는 것이다.

본 공연을 위하여 음지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몇몇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비록 지면에 실명을 거론 할 수는 없음이 안타깝지만,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좋은 공연이 이루어지게끔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bout Play

사랑일까 의무일까? 한 부부의 기이한 동거

면도칼로 목을 긋는 남편. 오히려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는 아내, 휠체어에 올라탄 남편을 데리고 정신과 상담실로 들어오고 의사와의 상담속에 하나씩 밝혀지는 그들의 관계...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상황만을 진실이라고 판단해버리는 오류, 사회자의 설명 속에 극중극과 재연극이 교차되며 숨막히게 펼쳐지는 어쩌면 우리들이 숨기고 싶은 삶의 단편들...



관객평

새 나 » 연말 사소한 우울들이 발목을 붙드는 이때 깊이 생각할거리를 던져주어서 감사한 공연이었습니다.

소리소문 » 1시간 남짓의 연극을 보면서 저 부인의 모습이, 저 남편의 모습 또한 내 모습이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극, 책, 영화 등 모든 것들이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세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도라에몽 » 구민주님의 입술주변이나 눈주위의 그 경련과 같이 미세한 떨림으로 시작해서 드러나는 감정의 폭발들은 소름 돋는다. 호민님의 아무런 표정변화 없는 대사속에 순간 순간 변하는 표정들..아~~ 압권. 이다.

msHan » 70분 정도의 집중력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배정과 스토리 텔링이 이루어져 이해될 수 있고 긴장감 있는 극적인 연출, 그리고 최종재료인 훌륭한 연기력이 더해진 이 극이 정말로 와닿았다.

UC 맨 » 전제적인 스토리의 이해보다는 장면들 순간의 상황들을 보는 재미가 저에게는 더 큼니다. 구민주 배우님은 극의 후반부에서는 제 어깨가 움찔 할 정도의 전율의 연기를 보여주셨더군요. 호민 배우의 붉은 조명속에서 들려오는 나긋나긋한 대사들이 오히려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터져나올듯한 에너지를 가득 숨기고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듯한 그런 느낌!

View point

... 돌아온 그녀 1년만의 무대

배우 구민주.. 치명적 카리스마의 압도적 존재감 !!

... 극적 아이러니의 미학

웃음속에서 씁쓸함을 진지함속에서 실소를 만들어 내는 연출가 호민의 짜임새 있는 연출력 !!

... 연극적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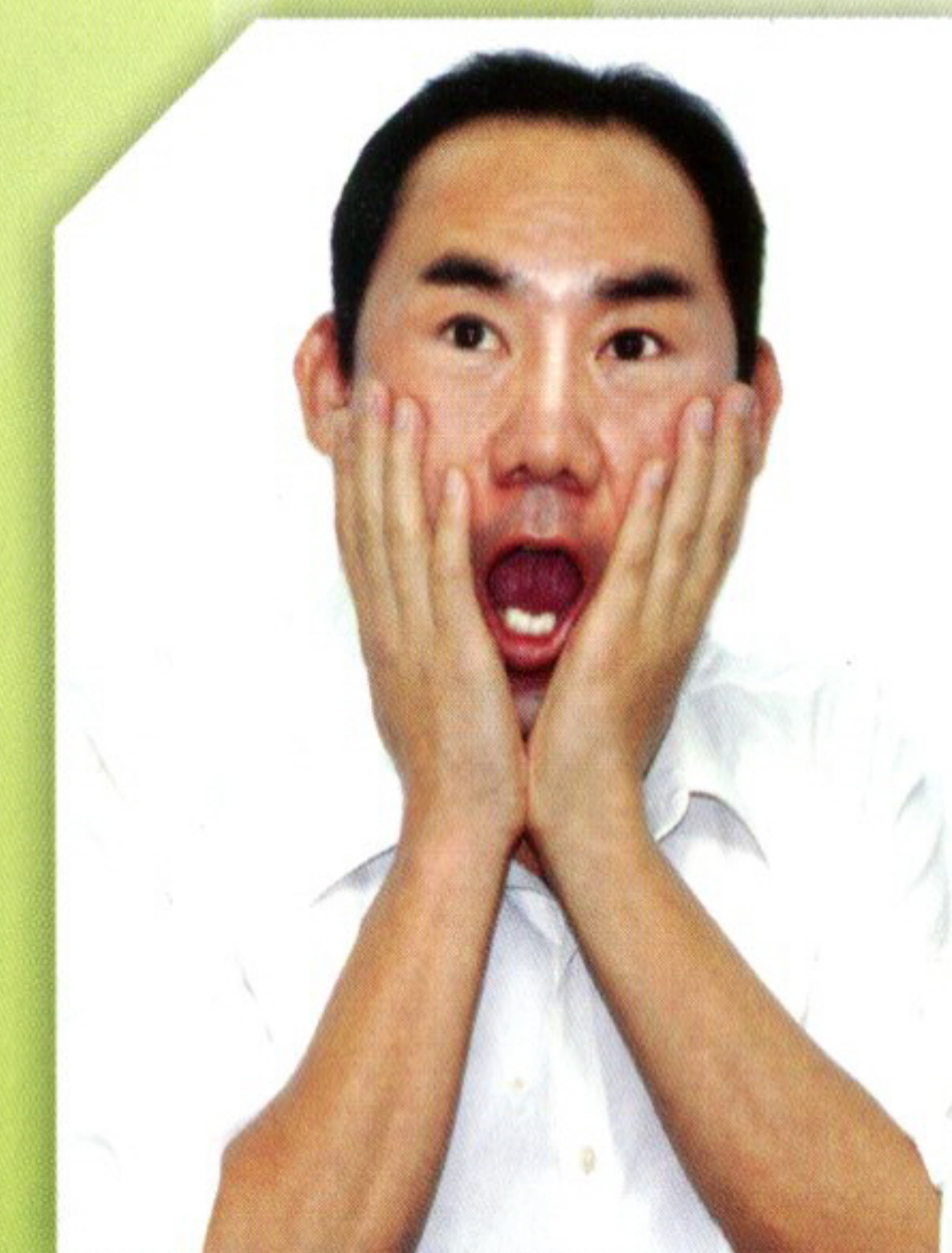
뽕뽕 터지기만을 바라는 버라이어티식 공연 홍수속 연극을 위한 연극에 의한 연극다운 연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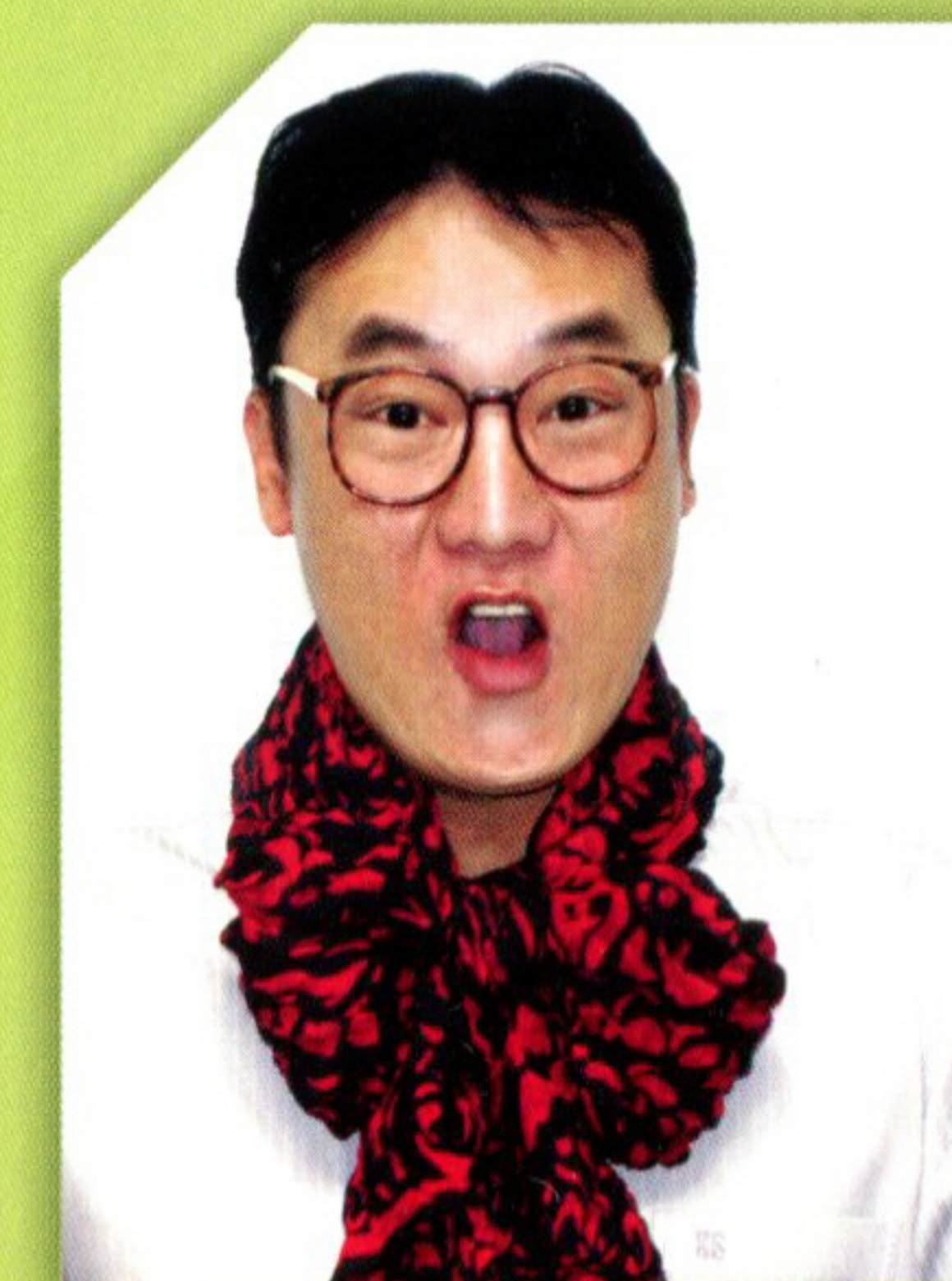
Character



아내 구민주



의사 호 민



사회자 호준철



남편 성민규